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제발 변해라

지도를 펼쳐보라. 현재의 복잡한 정치상황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것도 반쪽만의 남한은 너무나 초라하다. 남북이 하나일 때도 강국이 아니었다. 중국의 강력한 힘 아래서 항상 힘든 생활을 해야 했다.

근대에 와서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국들의 영향력 아래서 신음했다. 지금도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4강의 발톱아래 있는 병아리 신세다.

나날이 강해지는 일본, 미국까지 일본의 시각에서 아시아를 바라보고 있다. 중국의 견제구로서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가 일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본 또한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국이 추스르기에 바쁘다. 그야말로 트럼프의 힘을 십분 활용해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가고 있다. 아니 이미 하고 있는 것도 많다.

경제력 등 강력한 일본의 힘을 활용하여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물론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국이이정책을 펼치고 있다.

위안부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추악한 과거는 철저히 덮어둔 채 지지대는 안하무인격의 극치다. 이게 일본이다.

러시아, 미국, 중국 등도 온도의 차이만 약간 있을 뿐 역시 일본과 다를 바 없다. 국내의 일부 극우보수주의자들은 지금도 미국을 거의 수호신처럼 생각하는 듯하다.

과연 그런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자신들을 공격했던, 3대 적국 중의 하나인 일본과 손을 굳게 잡고 세상을 주름잡고 있잖은가. 극단적 상황에 처했을 때 미국은 한국이 아닌 일본을 선택할 것이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본이 훨씬 더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 깊이 관조해 봐야 할 대목이다.

때문에 우리의 영토와 주권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지금도 중국과 일본은 우리를 넘보고 있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별다른 대처방안도 없다. 힘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남북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보다 앞서 남북갈등부터 줄여야 할 뿐이다.

그런데도 날마다 치고 박는 싸움질, 마치 거인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소인들의 혈투 같다.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은 이중국적을, 해외에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나, 무슨 일반 생각이 바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한민국의 극상위층이 아닐까.

오늘도 이들은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을 주물럭거리고 있을 것이다. 험란한 허로 수많은 과변을

날리면서, 큰일이다. 결국 대다수 민중들만 불쌍하다. 하기가 단 한 번이라도 민중이 주류가 되어본 적이 있었는가.

고려시대에는 귀족계급이, 조선시대에는 양반계급이, 일제시대에는 일본의 앞잡이가 주류였다. 그 이전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나라 잃은 암흑기에도 일제 앞잡이들은 대지주 계급을 형성해 소작농들을 무참히 흡혈했다.

때문에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겨울을 체 넘기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수직스런 보릿고개가 존재하지 않았던가. 작금의 상황 역시 비슷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북한 대한민국은 열강의 발톱아래 언제 차여갈 지 모르는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날마다 정쟁이다.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종 개혁정책이 펼쳐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권력구조도 그동안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다행이다. 그런데 일명 수구꼴통 보수층이라는 패거리들의 극단적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로 숨통이 막혀 있다. 제발 변해라.

이제 탄생된 문재인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그래야 국가와 국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애국심이다.

社說

통신비 인하 관철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정기국회 회기 중인 올해 10월 전후로 만들어진 전망이다. 기대가 크다. 통신비 인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통신사업자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 기관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하순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결정에 맞춰 통신비 인하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준비 중이다.

이 기구는 정부가 추진중인 통신비 절감대책 중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추진, 단말기 유통 혁신 방안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다만 심의나 의결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고, 국회나 정부가 입법·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국회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참여

여자 선정 기준 등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기 제조사,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포털이나 동영상 업체 등도 이 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계청 기준 가계통신비에 포함된 '서비스요금'(통신서비스요금)이나 '통신장비 비용'(단말기 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외된 콘텐츠 사용료도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가계통신비 중 꽤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유다.

참여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구 구성 주관을 국회와 정부 중 어느 쪽이 맡느냐에 따라 전자의 경우 20~25명, 후자의 경우 15~20명이 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통신비 인하가 한시바빠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고

김병길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빅데이터(Big Data)와 소방

빅데이터는 기존 방식으로는 수집·저장·검색·분석할 수 없는 방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 때 선거캠프에서 활용한 후 각광받았고 사회적 흐름이나 현상을 파악하는 새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적 경영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서 먼저 시작됐다.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출된 정보를, 상품 및 전략개발과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 월마트의 경우 소비자 개인의 구매리스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개인의 쇼핑행태에 맞는 할인쿠폰을 개인별로 제

공함은 물론이고, 숨어있는 고객 니즈를 발견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또한 예측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추출해 리스크 경감이나 실시간 경영환경 모니터링 구축에도 도움을 받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영업 중인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화재예방책입보합을 가입해야 하므로, 선의의 다중이용업주들이 과태료라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소방조직에서는 법률의 변경 사항과 보험가입 홍보를 다중이용업주들에게 실시하는 동시에, 소방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빅데이터 중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각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민간 보험회사들이 자사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소방에서 제공한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후 보험가입 대상인 다중이용업소를 경쟁적으로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함은 물론, 보험회사에서 업소별 보험보해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방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빅데이터는 119 신고전화일 것이다.

매일 119상황실로 걸려오는 수많은 전화에는 어느 곳이 화재에 취약하고, 어떤 상황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하는지, 지금 준비해야

할 백신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이다.

119신고전화는 언론매체나 각종 연구소 발표들보다 훨씬 빠르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소방에 보내주고 있다.

국내의 어느 조직이 이처럼 가공되지 않은 중요한 데이터를 비용의 지불 없이 국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 국가 통계기관과 각종 민간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기념품을 받아본 사람이면 이것의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소방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내부에 존재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춘 데이터를 이해하고 발굴하는 것이며, 데이터의 가치를 알아볼 내부전문가와 발굴된 데이터의 분석 전문가 양성 또한 매우 시급한 일일 것이다.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여 본격적인 빅데이터 활용단계로 진입한다면, 완전한 의미의 선제적 재난대응은 어쩌면 가까운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甲	갑옷	갑	甲帳對楹
帳	장막	장	
對	대할	대	
楹	기둥	영	

▷ 뜻: 아름다운 갑장이 기둥을 대하였으니, 동방식이 갑장을 지어 임금이 잠시 정지하는 곳임.

湖南新聞 (062) 224-5800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겸 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저체중가림, 자태치료 증진 민력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검진, 합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간이 혼잡하므로,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 콜센터 129 | 고객센터 1577-1000